

“2008년도 제2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2008년도 제2차 “지역경제연구회”를 4월 24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 대전·충남지역의 혁신관련 테마 중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대전·충남지역의 경제전문가 20명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경제연구회는 현재 3년째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 2월 21일 1차 연구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연구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최근 일본의 지역정책 동향: 균형이나 경쟁이나”라는 주제 아래 1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뒤 이어 공주대학교 김봉한 교수의 “지역 간 주택가격의 전이효과”를 주제로 하여 2주제 발표 및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연구회를 통해 대전·충남의 경제를 우리나라의 강남과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를 접목시켜 향후 경제력 향상의 청사진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제자의 연구에 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간담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포지엄” 참가



지난 6월 2일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간담회가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균형위, 행안부, 지경부, 국토부, 시도협의회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 시도를 비롯하여 시군구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존속이 확정되면서 이번 의장단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정부의 방향과 맞물려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으로 의장단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6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의 공동주최로 “글로벌시대,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자치단체 및 광역경제권구축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역경제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